

내년 수능 문·이과 통합... 국어·수학 '공통+선택' 체계로

국어 - 공통 '독서·문학', 선택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수학 - 공통 수학 I·수학II, 선택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
재수생에 불리하지 않고 정시 비중 확대 실보다 득으로 작용

정부가 내년에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당초 발표했던 대로 문과와 이과를 통합해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현 고교 2학년생은 물론 재수를 고민하는 수험생들의 거취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 11월 18일로 예정된 2022학년도 수능에선 국어와 수학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체계로 개편된다.

국어는 공통과목으로 '독서·문학'을 편제한다. 문학과 독서의 비중은 각각 15문항에서 17문항으로 늘어난다. 선택과목으로는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이 생긴다.
수학은 가형·나형 구분 없이 수험생은 수학 I과 수학II를 공통과목으로 치르고, 선택과목으로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를 본다.
수험생은 공통과목은 모두 응시해야하고 선택과

목은 1개씩 골라서 치러야 한다.
사회탐구·과학탐구 영역에서는 문·이과 구분 없이 수험생이 탐구영역 총 17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골라 응시하면 된다.
이에 따라 바뀐 수능 첫해지만 재수를 고민하는 수험생들은 한 번 더 도전해볼 만하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사실상 문·이과의 선택과목이 정해져 있고 교육과정도 오히려 다르지 않아 재수생들이 바뀐 수능으로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서울 주요 대학들은 자연 계열 지원을 위해 수험생이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라고 제시한 상태다.
이과 수험생들은 두 과목 중 하나를 택하면 된

다. 2021학년도 수능 출제 범위에 '기하'가 제외돼 있어 공부를 덜 한 만큼 재수생들은 '미적분'을 택하면 무리가 없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문과의 경우 특정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는 대학은 거의 없지만 자연 계열 학생들과 경쟁을 피하려면 선택지가 사실상 '확률과 통계'만 남는다. 이 경우에도 올해 수능 시험 범위와 크게 차이가 없다.
남윤근 메가스터디교육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학에서 문과는 '확률과 통계'를 보면 되고, 올해 고3은 내년 재수할 때 '미적분'을 선택하면 될 것"이라며 "국어는 선택과목이 생기면서 오히려 범위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입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주요 대학

의 정시 비중이 확대되는 점도 재수에 실보다 득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시 전형을 축소하고 정시 전형을 확대하라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서울 지역 16개 주요 대학의 정시 선발 비중을 2023학년도부터 40%까지 늘려야 한다. 상당수 대학은 2022학년도부터 정시 비중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서울 주요 16개 대학에서 정시 선발 인원이 5천 명 이상, 현재보다 10%가량 늘어난다"며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고3들에게 내년 정시 확대 움직임은 재도전 시그널로 읽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서울 학생들 전남에서 농산어촌 유학

6개월 이상 체류하며 맞춤형 교육활동·자연 생태 환경 체험

내년 봄부터 전남지역 초·중학교에서 서울 전학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오른쪽)은 7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농산어촌유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장 교육감과 조 교육감은 서로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과 생태교육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농산어촌유학을 통해 학생들을 미래인재로 키워낸다는 데 합의했다.
농산어촌 유학이란 전남 이외 도시 학생들이 전남 학교에 전학해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개인별 맞춤형 교육활동과 온마을 돌봄과 연계한 자연·생태·환경 체험에 참여함으로써 배움과 삶·도전 역량을 키운다는 개념이다. 협약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전남 학교에 유학할 서울 학생들을 모집하고, 이들의 유학생활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앞서 전남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 속 농산어촌 작은 학교가 많은 전남의 교육여건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과정 운영에 유리했다고 판단, 이를 도시 학생과 공유하자는 취지로 유학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전남교육청이 협약 이행을 위해 지역 학교와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순천·담양·곡성·화순·강진 등 14개 시·군에서 30개교(초 28·중 2)가 유학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했다. 이들 학교에 유치 가능한 유학생은 167명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초당대 비행교육용 항공기 3대 도입
초당대학교(총장 박중구)가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고, 항공산업의 미래를 이끌 항공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발걸음으로 항공기 3대를 추가 도입했다. 이번 추가 도입된 3대의 항공기는 오스트리아 다이아몬드 회사의 기종으로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 학생들의 교육훈련 및 실습용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초당대 제공〉**

광주대, 체험형 교육 통해 재학생 전공역량 강화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선후배가 함께하는 전공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기분역량진단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광주대는 재학생들의 전공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국내 체험형 프로그램인 '2020 로컬챌린지'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대학혁신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무형 전공강좌 개발과 맞춤형 자격증 취득에 이은 것이다. 광주대는 로컬챌린지를 통해 도전정신과 창의성, 문제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재학생 스스로 전공역량을 기르고 조직하는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광주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

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전공강좌를 개발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9 광주대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전공 교과목 신설·개편을 통한 현장실무역량 제고와 산학연계 교육과정 고도화를 위해 전공 교과목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광주대는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통해 재학생들이 전공 분야에서 전문 인재로 성장, 우수한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을 돕고 취업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광주대 교육혁신연구원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최근 학습오류공동체 활동사례 발표 경진대회를 학교 호심기념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동신대 비교과교육지원센터 2020 인성교육심포지엄 개최

동신대학교 비교과교육지원센터는 인성교육 분야의 특성화된 교육 모델 제시를 위해 2020 동신대학교 인성교육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심포지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기관리'를 주제로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재학생 90여 명, 교원 및 대학원생 40여 명, 외부 신청자 40여 명 등 총 160여 명이 참여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이영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나서 '코로나-19시대에 자기 마음 돌보기'를, 서울예술대학교 변상우 교수가 두 번째로 나서 '감정의 조절과 관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박은민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박희현 교수와 이은주 교수가 발표 주제에 대한 종합 토론 시간을 가졌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동강대, 국제보건전문가 양성 박사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 사업 선정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2019년에 이어 국제 보건 전문가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동강대 국제교류원(원장 김윤식)은 최근 한국 국제협력단(KOICA)에서 주관하는 '2021년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 사업'에 선정됐다. KOICA 사업은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

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분야로의 진로탐색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이다.
동강대는 2019년 이 사업에 선정돼 대학 내 임상병리과 등 보건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 과목을 개설하고 의료봉사 경험이 많은 기관 등과 협업을 통한 해외 현장 활동, 중·고교 재능 기부 등을 펼쳤다. 특히 코이카 사업을 10여 년 간 담당해 온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외협력부의 도움을 받아 인도네시아 만다라체주 베사르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등 글로벌 한 보건 분야 전문가로서 자질을 쌓았다.
/채희중 기자 chae@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